

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美 3분기 국내총생산(GDP) 호조에 소폭 하락

* 국채가,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3분기 GDP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

* 오후들어 국채가는 방향도 없었고 등락 폭도 적었음

[미국]

2y 1.19% (+0.4bp)

5y 2.03% (+1.5bp)

10y 2.55% (+1.5bp)

30y 3.13% (+1.8bp)

[기타 10Y물]

영국 1.37% (-2.2bp)

독일 0.25% (+1.3bp)

프랑스 0.72% (+2.7bp)

이탈리아 1.85% (+2.9bp)

스페인 1.39% (+3.5bp)

그리스 7.06% (+0.2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엇갈린 경제지표 & 차익 실현에 일제히 하락

* 美 3분기 GDP,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... 탄탄한 소비지출과 기업지출 덕분

- 3분기 GDP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3.2%를 상회하는 3.5% 기록

- 3분기 개인소비, 2.8%(수정치)에서 3%로 상승

- 11월 개인소비지출(PCE), 조사치(+0.3%) 하회하는 전월대비 0.2% 증가

* 미국 실업보험청구자수 2만1천명 늘어난 27만5천명 기록... 6개월래 최고치

* 11월 美 내구재수주, 2년3개월래 최대 감소... 10월 항공기 주문이 급증했던 영향으로 풀이

- 지난달 수정치(4.8%)를 대폭 밑돈 -4.6% 기록... 전망치 -4.8% 보다는 높은 수준

* FRB가 물가상승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, 전월과 동일... 전년대비로는 1.4% 상승

* <유럽 마감>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우려에 혼조세

* <상하이 마감> 전날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 약세 속에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 마감

* <도쿄 마감> 연휴 앞두고 관망 분위기 속 금융주 등 최근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

DOW30	19918.88	(-0.12%)
NASDAQ	5447.42	(-0.44%)
S&P500	2260.96	(-0.19%)
NIKKEI225	19427.67	(-0.09%)
SHANGHAI	3139.56	(+0.07%)
FTSE100	7063.68	(+0.32%)
DAX30	11456.10	(-0.11%)
CAC40	4834.63	(+0.02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험권에서 혼조세

유로/달러	1.0434	(+0.0004)
유로/엔	122.68	(+0.07)
달러/엔	117.57	(+0.04)
달러/위안	6.9435	(-0.0054)
NDF	1203.20 / 1203.60원...5.00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(GDP) 호조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

* <국제 금값> 미국 경제 성장률 호조에 소폭 하락

WTI	52.95	(+0.9%)
COMEX금	1130.70	(-0.2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2035.73	(-0.11%)
코스닥	615.93	(-0.44%)
원/달러	1199.10	(+5.20)
KTB	109.57	(+0.10)
LKTb	125.67	(+0.02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혼조 마감. 중단기물 금리 하락 & 초장기물 금리 다소 상승. 커브 스티프닝.

-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역할 강조 발언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 약세가 한때 심화.
- 전반적으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외인이 3년 국채선물 매수에 나선데다 내년을 대비한 단기물 수요가 유입되며 단기물 금리 하락.

CD(91일) 1.540% (0.00bp)

[국고채]

1y	1.5710%	(+0.10bp)
3y	1.6470%	(-3.50bp)
5y	1.7950%	(-3.00bp)
10y	2.1000%	(-0.20bp)
20y	2.1400%	(+1.70bp)
30y	2.1570%	(+2.40bp)
50y	2.1520%	(+2.40bp)

[통안채]

1y	1.5630%	(+0.50bp)
2y	1.6500%	(-2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6.30bp	(0.00bp)
2y	-14.50bp	(+2.25bp)
3y	-10.45bp	(+3.75bp)
5y	-15.75bp	(+3.25bp)
10y	-28.00bp	(-0.55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조용한 가운데 3년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비드가 유입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.

* CRS, 에셋물량 영향과 함께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.

*IRS 금리

1Y	1.5000%	(+0.50bp)
2Y	1.5050%	(+0.25bp)
3Y	1.5425%	(+0.25bp)
5Y	1.6375%	(+0.25bp)
7Y	1.7150%	(0.00bp)
10Y	1.8200%	(-0.75bp)

1*2Y	0.50	(-0.25bp)
2*3Y	3.75	(0.00bp)
2*5Y	13.25	(0.00bp)
3*5Y	9.50	(0.00bp)
5*7Y	7.75	(-0.25bp)
5*10Y	18.25	(-1.00bp)

*CRS 금리

1Y	0.8800%	(0.00bp)
2Y	0.9500%	(-2.50bp)
3Y	1.0250%	(-2.50bp)
5Y	1.0900%	(-4.00bp)
7Y	1.0900%	(-4.00bp)
10Y	1.0800%	(-4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그 외 美 경제지표

- 11월 전미활동지수, 전월의 -0.05에서 -0.27로 하락
- 11월 경기선행지수 전달과 동일한 124.6 기록

* 이탈리아 3대은행인 BMPS, 결국 증자에 실패하고 정부 구제금융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시장에 불안감 조성

* 브라질 중앙은행 '2017년에도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것'...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.3%에서 0.8%로 조정

[국내]

- * 이주열 "내년 성장률 2.8%보다는 낮아질 것"
 - * 이주열 "美 금리 방향과 상충 가능성...상황 보겠다"
 - * 이주열 "경제적 어려움, 통화·재정 하나만으로 풀 수 없다"
 - * 이주열 "가계부채 긴 시각에서 일관성있게 대처"
-

- * 이주열 "금리 정책에 가계 이자상환 부담 반영"
- * 이주열 "적정금리, 경제 급랭 방지하면서 금융안정에 방점둬야"
- * 이주열 "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역할 할 것"
- * 이주열 "주택가격 급락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"
- * 이주열 "美금리 3회 올려도 지금 금리수준 유지하는 건 아니다"

- * 유일호 "성장률 2.5% 밀돌면 추경 심각히 고민"
- * 유일호 "통화정책은 통화당국 몫"

* <한은 현안보고>

- 내년 성장률 2.8% 밀돈다...시장 소통 강조
- 물가, 내년 상반기 목표수준 근접

- * 국채 단기 줄고 초장기 늘고...채권시장 "물량은 중립적"
- 보험사 수요가 충분해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
- 익률 곡선은 국고 10년물을 기준으로 다소 가팔라질 수 있을 것

금일 예정 지표

- * '일왕탄생일'로 일 금융시장 휴장 *
- * '크리스마스'로 영 금융시장 조기 마감 *
- * '크리스마스'로 미 채권시장 조기 마감 *

독일-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(예상:9.9, 이전:9.8)

영국-GDP(QoQ) (예상:0.5%, 이전:0.5%)

미국-11월 신규주택판매 (예상:575K, 이전:563K)

-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(예상:98.0, 이전:98.0)